

영화 VS 영화

2018년 새해 극장가에 남들과 달라서 다소 생소하지만 특별한 매력을 지닌 이들이 관객과 만난다.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닌 '어기'가 주인공인 '원더'와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를 그린 '그것만이 내 세상', 두 영화가 현대사회에 만연한 '다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따뜻한 시선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름'에 대한 편견 없애줄 감동 스토리

◆ '원더' 헬멧 속에서 마주한 용기
영화 '원더'는 헬멧 속에 자신을 숨겼던 아이 '어기'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동시기 상영작 중 네이버 평점 1위에 등극하며 새해 극장가의 웰메이드 힐링 무비로 손꼽히고 있다.

주인공 '어기'는 트레처콜린스 증후군(귀, 눈, 광대뼈, 턱뼈를 포함해 얼굴의 기형을 특징으로 하는 선천성 장애의 일종)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지녔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호기심 많은 성격의 긍정적인 10살 소년.
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의 시선을 점차 변화시킨다.

'어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그

제작 초기 단계부터 안면기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제작진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문제는 그들을 옳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름'에 편견을 가진 부정적인 시선에 상처받는 안면기형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평범하게 바라봐주는 인식의 변화임을 강조했다. 영화에는 제작진의 이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영화는 전세계 800만 독자를 사로잡은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탄생했다. 북미에서 개봉 첫 주 2700만불의 흥행 수익을 내며 동시기에 개봉한 '토르:라그나로크'와 '저스티스 리그' 등 블록버스터 틈에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이후 릴레이 호평 속에 장기 흥행에 돌입, 1억불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국내 관객들에게도 공감을 증폭시켰다.

원더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어기' 헬멧속에 숨긴 자신 드러내 긍정적 마인드로 편견 없애

화려한 액션과 블록버스터 틈에서 중간 규모의 제작비와 기획력, 빛나는 메시지로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고 있는 '원더'의 기적 같은 흥행 성공은 여러 면에서 뜻깊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영화 '원더'를 본 관객들은 '어기'와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따뜻한 시선에 대해 뜨겁게 공감하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윤여정·박정민 출연 서번트 증후군 '진태'와 엄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동과 재미 다 잡았다!

남들과 다르지만 특별한 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바꿔줄 또 하나의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그것만이 내 세상'(감독 최성현)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이병헌)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 '인숙'(윤여정)과 서번트 증후군인 동생 '진태'(박정민)를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다.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발현되는 일부로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증상이다. 영화 속 주인공 '진태'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고 게임, 라면, 피아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 천재 소년이다. 영화는 '조하'가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와 한집에 살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동시에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눈여겨 볼 포인트는 다름아닌 두 형제의 케미다. 이병헌과 박정민은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연기로 극의 몰입력을 높인다. 코믹 가족극이라는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장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배우의 열연 때문이다. 이병헌의 능청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연기와 박정민의 섬세한 장애 연기가 빛어내는 환상적인 형제 케미는 이 영화가 내세우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1월,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특별한 그들만의 이야기에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해바라기, 나팔꽃 (제주 팜랜드)

당신이 있어 나는 더 꽃이 됩니다. 꽃 피운다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고흥근 작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7 스키점프

2014년 소치 올림픽부터 여성 참가 도약대 거리로 노멀힐·라지힐 구분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스포츠가 있다. 바로 스키점프다.

스키점프는 19세기 후반 북유럽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 제1회 동계올림픽인 1924년 샤모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964년 인스브루크 대회에서 노멀힐 종목이 추가됐고, 1988년 캘거리 대회에서 단체전이 정식종목에 포함됐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올림픽 스키점프가 여성에게도 개방된 것은 2014년 소치 대회부터다.

스키점프는 비행 거리와 자세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른다. 흔히 아는 것처럼 멀리 날아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5명의 심판은 도약과 비행, 착지를 2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뺀 나머지 3명의 점수를 합산해 6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착지도 중요하다. 이상적인 자세는 한쪽 무릎을 굽힌 채 양팔을 벌리는 것이다. 이 동작의 이름은 텔레마크(Telemark)로 실패할 경우 큰 감점을 받는다.

올림픽 스키점프 사상 최초로 심판 전원에게 20점 만점을 받은 선수는 가즈요시 후나키(일본)다. 그는 1998년 나가노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독일 힌터자르텐의 2017-2018 국제스키연맹(FIS) 스키점프 월드컵 여자 노멀힐 개인전에서 다카나시 사라(21·일본)가 높이 날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회 스키점프 라지힐에서 사상 첫 만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남자 노멀힐(K98)과 라지힐(K125), 여자 노멀힐(K98), 남자 단체전(K125)까지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노멀힐과 라지힐을 나누는 기준은 도약대의 거리다.

점프대 규격을 분류하는 데 쓰이는 'K'는 독일어 크리티슈 포인트(Kritisch Point)의 약자다. K125는 비행 기준거리가 125m, K98은 98m인 식이다.

선수가 기준거리에 도달하면 기본점수 60점이 주어진다. 1m를 더 날아가면 라지힐 기준 1.8점을 추가하고, 모자라면 1.8점씩 감점한다. 노멀힐은 2점이 주어지거나 깎인다.

멀리 날아가기 위해선 순풍보다 역풍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역풍 때 양력의 영향을 받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자세도 한몫 한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스키 앞을 벌리는 'V'자 자세를 취하면 바람에 몸을 맡기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는 남자 카밀 스토흐(폴란드), 여자 다카나시 사라(일본)다.

한국에서 스키점프는 영화 '국가대표'를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활약했던 최흥철, 최서우, 김현기(이상 하이원)는 여전히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다.

여자 스키점프 국가대표 1호 박규림(상지대관령고)도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스키점프에 출전한다.

평창에서는 10일 남자 노멀힐을 시작으로 12일 여자 노멀힐, 17일 남자 라지힐, 19일 남자 단체전 순으로 경기가 열린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1월 15일
음력 : 11월 29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6 | 해질 / 17:37

백령도 1/3, 파주 -3/5, 인천 2/5, 수원 1/6, 평택 1/7, 연천 -1/6, 동두천 0/7, 가평 -1/6, 서울 2/7, 양평 -1/7, 용인 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